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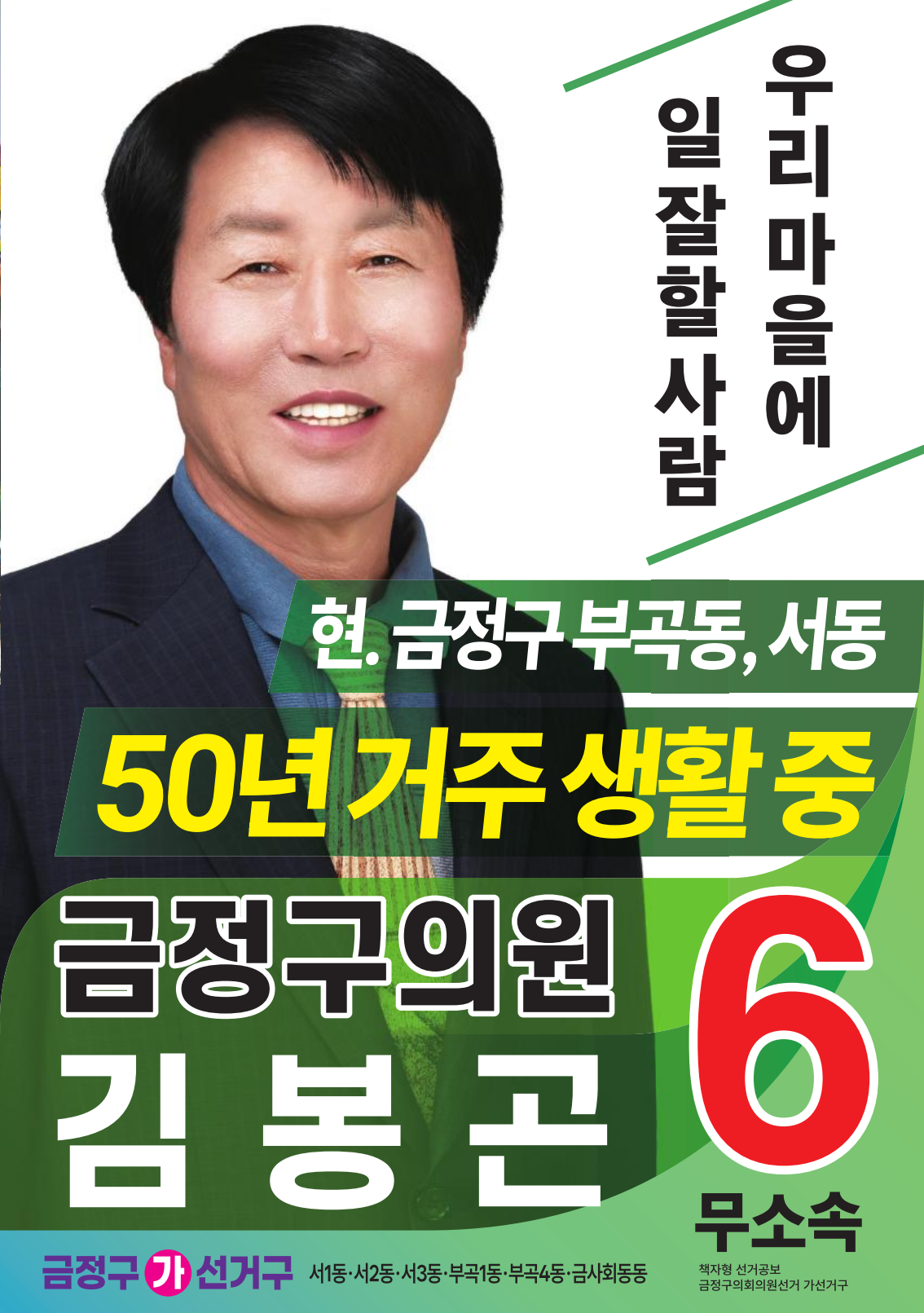


배움터저킴이자원봉사



후보자 배우자(활동지원사 복지활동)

"우리 마을에 일 잘할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 마을에
일 잘할 사람

현. 금정구 부곡동, 서동

50년 거주 생활 중

금정구의원
김봉곤 6

무소속

금정구 가 선거구 서동·서2동·서3동·부곡1동·부곡4동·금사회동동

책임형 선거공보
금정구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저 김봉곤이 약속드립니다.”

- ✓ 50년 거주민의 노하우로 동네 구석구석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생활 밀착형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 ✓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증명하는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의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 ✓ 오직 저를 믿어주시는 우리 마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만 듣고 행동하는 “이웃집 의원”이 되겠습니다.

6 금정구의원
김봉곤
무소속

금정구 가 선거구

김봉곤 선거사무소
☎ 010-2553-9925
✉ kimbong9925@naver.com
📍 부산시 금정구 서동로104번길3, 1층

[별지 제17호서식의(다)]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금정구의회의원선거 (금정구가선거구)

1. 인적사항

| 기호 | 소속정당명 | 후보자성명 | 성별 | 생년월일 (세) | 직업 | 학력 | 경력 |
|----|-------|-------|----|----------------------|----|---|---|
| 6 | 무소속 | 김봉곤 | 남 | 1957.08.15. (68세) | 무직 | 감포고등학교 (현 한국국제통 상마이스터고등 학교) 졸업 | (전)제5회 금정구의회의원(나선 거구) 출마 (전)현곡초등학교(부곡동) 학생을 위 한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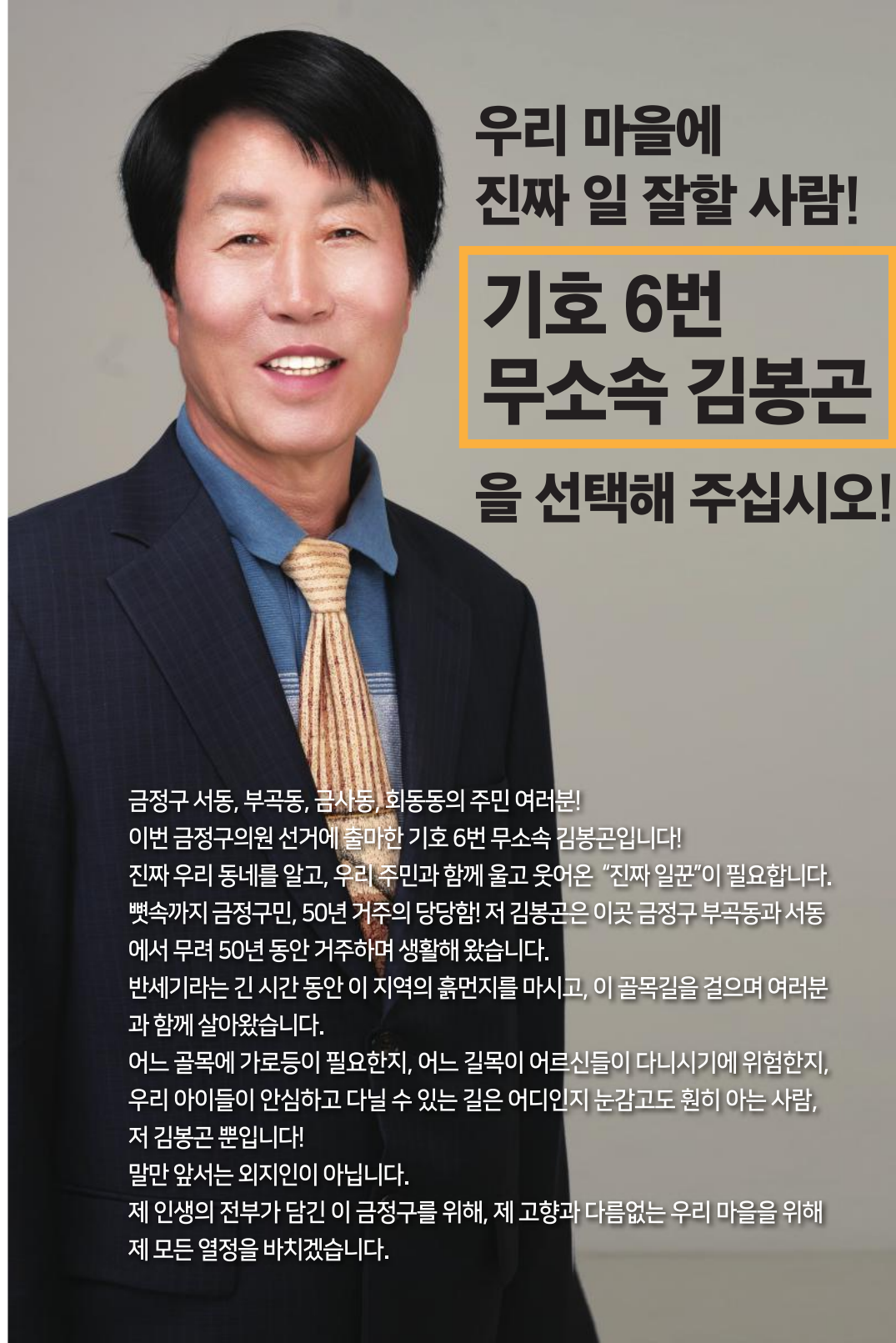
| 재 산 상 황 (천원) | | | | | 병 역 사 항 | | |
|--------------|--------|--------|------|----------------|-----------------|-----|--------------------|
| 계 | 후보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후보자 | 배우자 | 18세이상 직계비속 |
| 101,410 | 20,000 | 92,000 | 해당없음 | 장남:△10,5 90 | 육군 일병 (반기전역) | | -장남:육군 이병(반기전역) |

3. 세금 납부·채납실적 및 전과기록

|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채납실적(천원) | | | | 후보자 전과기록 |
|-------------------------------------|-------|------------------|-------|---|
| 구 분 | 납 세 액 | 채 납 내 역 | | |
| | | 채납액 누계 (완납일자) | 현 채납액 | |
| 계 | 1,123 | 0 | 0 |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행사:벌금 150만원(2012.01.27.)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벌금 500만원(2016.06.09.) -협박, 절도:벌금 300만원(2016.06.23.) |
| 후 보 자 | 0 | 0 | 0 | |
| 배 우 자 | 461 | 0 | 0 | |
| 직계존속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직계비속 | 662 | 0 | 0 | |

4. 소명서

사건 년도에 소기업을 운영하였고, 직원들 일부 잘못된 일속에 직원들 대신하여 사업장 대표로서 처벌을 받았으며 그에 대한 반성과 뉘우침.



우리 마을에 진짜 일 잘할 사람!

기호 6번 무소속 김봉곤

을 선택해 주십시오!

금정구 서동, 부곡동, 금사동, 회동동의 주민 여러분!

이번 금정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무소속 김봉곤입니다!

진짜 우리 동네를 알고, 우리 주민과 함께 울고 웃어온 "진짜 일꾼"이 필요합니다.

뽕속까지 금정구민, 50년 거주 of 당당함! 저 김봉곤은 이곳 금정구 부곡동과 서동에서 무려 50년 동안 거주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반세기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지역의 흙먼지를 마시고, 이 골목길을 걸으며 여러분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어느 골목에 가로등이 필요한지, 어느 길목이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에 위험한지,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은 어디인지 눈감고도 훤히 아는 사람, 저 김봉곤 뿐입니다!

말만 앞서는 외지인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전부가 담긴 이 금정구를 위해, 제 고향과 다름없는 우리 마을을 위해 제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